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2. 12. 21(수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 성 과	투자유치기획과
담 당	과장 정경원, 정주지원팀장 이서홍, 담당 김경선(032-453-7663)

송도 의료기관 15곳 ‘외국인 친화 사업장’ 으로 선정

IFEZ 거주 외국인 언어 불편 해소 등 차원...인증 표지판 부착 완료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병·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 등 송도국제도시 내 의료기관 15곳을 ‘외국인 친화 사업장’으로 선정하고 인증 표지판을 부착했다고 21일 밝혔다.
- 외국인 친화 사업장 인증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거주 외국인들이 겪는 언어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영어 공용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. 또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사업장을 선정해 홍보하는 것이다.
- 선정된 병·의원은 △송도요셉치과의원 △송도퍼스트치과의원 △플러스정형외과의원 △서울미시간치과의원 △클렌피부과의원 송도점 △유편아리조나치과 교정과치과의원 △클린연세치주과치과의원 △서울스마트치과의원 △송도본정형외과의원 △플로라유외과의원 △엘리샤인터내셔널치과의원 △서울시카고치과병원 △송도우리치과의원 △울림한의원 △안녕성형외과의원 등이다.
- 외국인 친화 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IFEZ 거주 외국인들이

이 많이 이용하도록 리플렛을 제작해 인천글로벌캠퍼스, 송도 내 국제기구, IFEZ 글로벌센터 등에 배포하고 IFEZ·글로벌센터 홈페이지, SNS 등에서도 인증 병·의원을 홍보할 계획이다.

- 인천경제청은 사업장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송도 내 의료기관들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서를 받아 현장 평가를 통해 △영어 진료 가능 여부, △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종업원 근무 여부, △영문 웹사이트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제공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쳤다.
- 이에앞서 인천경제청은 송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언어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외국인 친화 사업장 인증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음식점 27곳에 대해서도 선정한 바 있다.
- 정경원 인천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 “음식점에 이어 올해는 병·의원으로 인증제를 확대하며 외국인들의 정주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”며 “영어가 통용되는 글로벌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